

미국 특허소송/제도 및 특허전략 해외연수단 파견

국내 대/중소기업계, 정부 및 연구소의 특허 전문가 그룹 참석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위한 미국특허 세미나가 미국 버지니아의 레스톤 (Reston, VA)에 소재한 특허전문 대형 로펌인 G&B (Greenblum & Bernstein, P.L.C.)에서 지난 5월 4일 부터 13일 까지 열려 국내의 특허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전쟁의 격전의 현장에서 그 전략과 실무를 익힘으로서 우리나라 특허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국전자산업진흥회(Korea Electronics Association)의 특허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개설된 이 세미나에는 국내 중소기업 등 특허실무자 22명이 참석했는데 LG, 삼성 등의 대기업 특허전문가와 파이컴, 케이씨텍 등 중소기업, 연구소 특허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또한 특허청에서 7명의 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이 세미나 참석자들은 업계, 정부 및 연구소가 모두 망라된 막강한 특허 전문가그룹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산업계에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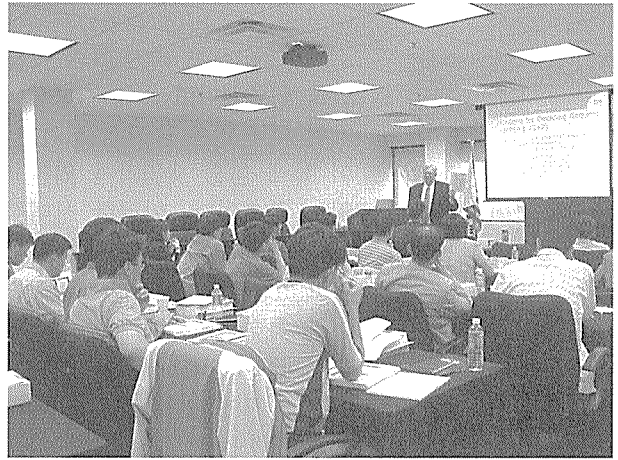
금년에 처음 시작된 이 세미나는 앞으로 매년 한번씩 개최될 예정이다.

특허전쟁의 격전의 현장에서 전략과 실무 익히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허전문가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양과 질이 기업의 생존, 국가 경제의 성패,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질서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각 기업들은 이 부의 원천을 소유하기 위하여 총성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같이 치열한 특허전쟁 속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 특허계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베스트바이(Best Buy)나 씨어즈백화점(Sears) 등 대형 가전제품 마켓에 가 본 사람들은 멋있는 외관으로 구매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LG 전자의 냉장고나 드럼 세탁기가 진열대의 맨 앞 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GE나 메이텍 (Maytag)사의 제품들은 매장의 한편 구석으로 밀려서 옛날의 전성시대를 회고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



버라이즌(Verizon)이나 스프린트(Sprint) 휴대폰 대리점에 가 본 독자들이라면 한국 휴대폰에 대한 그 뜨거운 인기를 또한 어렵지않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작년 삼성전자는 순 매출액이 일본의 10대 가전제품 기업들의 순이익을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LG전자는 2007년 세계 1위 가전업체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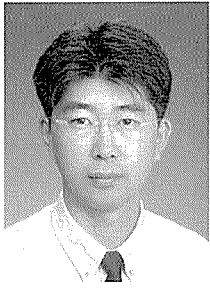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한국회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외국 경쟁기업들로부터의 특허 공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특허계의 합작품

Paul's Patent Academy로 이름지어진 이번 특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에 대하여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택수 (Paul Lee)변리사와 소속 변리사들의 미국특허청 총 경력이 200년이 넘음을 자랑하는 G&B의 13명의 변리사들이 미국의 특허제도 전반과 특허분쟁 및 전략에 대한 강의를 통해 명실공히 한미 특허계의 합작품이라 하겠다.

G&B는 미국의 특허 로펌으로는 드물게 한국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청, 변리사회, 연구소, 기업 등에서 여러번 세미나 등의 초청강사로 참여하였고, 지난 3월에는 국내 전자업계의 CEO모임인 CEO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우리업계의 CEO들이 특허에 대하여 가져야 할 전략적 사고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도 있는 우리 특허업계에는 잘 알려진 실력있는 로펌이다.

2005 G&B Patent Seminar를 다녀와서...



현대모비스
조한철 대리

Pro-patent! 즉, 특히 돈을 만들어 내겠다며 소위 기술강대국인 미국, 일본 등이 21세기 들어 목에 힘줄 세워가며 외치고 있는 구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기업의 특허업무를 맡고 있는 나로서도 늘 특허소송이나 특허선진국이라는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배움의 갈증이랄까 무지에 대한 두려움은 늘 품고 있던 것이었다. 지피지기라

야 백전백승이라는데 남을 모르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던 차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미국의 G&B P.L.C와 공동으로 2주일 동안 미국특허제도와 소송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는 소식은 내게 그러한 지식적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운 좋게 다가왔다.

5월3일 오전10시, 참가자 23명을 실은 비행기는 13시간을 비행하여 현지시각으로 출발 12시간 뒤인 정오경에 미국 워싱턴의 Dulles Airport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미리 참가자들간에 사전모임을 갖지 못하였던 터라 어색하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호텔에 짐을 풀고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첫인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분들이 특허업계에서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이번 세미나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G&B측에서는 이택수 변리사님을 비롯하여 한국인 직원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행사기간 내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5월 4일 오프닝 리셉션과 함께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허 소송이 3일, 나머지 한 주는 미국 특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강의 내용과 다소 빠빠하게 느껴지는 교육일정이 다소 힘에 부치기도 한 것도 사실이다. 내 자신이 영어에 자신이 없어 강의를 진행하는 여러 변호사분들의 원어강의가 다소 들리지 않아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았고, 교재 내용 또한 평소 접하지 않던 단어가 많아 쉽사리 넘어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국만리에 와서 누구를 원망하랴... 전자사전을 빌려가며, 용어집을 뒤적여가며 난 또 다시 영어와 씨름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이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 내용 이해와 평소 업무 하면서 궁

금해하던 부분을 서로 얘기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 내내 느낀 점이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Pro-patent 시대에 들어선 지금,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적재산을 최적의 요건으로 등록/활용하고, 소송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소송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비용이 좌지우지됨을 각종사례를 통해 접하며 내 현재 업무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도 무척이나 중압적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출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출장업무의 중압감을 덜어 주는건 뭐니뭐니해도 출장지의 관광이나 낯선 문화의 체험이 아닌가 싶다. 내 개인적으로는 중노동에 가깝다고 느낀 골프와 주말을 이용해 홀로 D.C.구경과 버스, 메트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고 느낀 것들이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될듯하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2주간의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느새 오래된 친구, 선배처럼 느껴지던 참가자 분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서로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지 않나 싶다.

세미나 내내 교육, 식사,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신 이택수 변리사님과 G&B 스태프들, 세미나 기획에서 진행, 마무리까지 애쓰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담당자들에게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큰 보람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참가자 전원이 향후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 특허에 대해 지식을 넓혀가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시작이 반인 만큼 나머지 반도 똑 같은 열정과 패기로 헤쳐나가 이번 참가자 모두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이 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U 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지원 워크숍 개최



본회는 200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유럽의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전자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역별 중소기업 종합지원』 사업 워크숍을 5월 24일 ~ 25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무연솔더링 신뢰성 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는 수원, 부천, 안산을, 호남에는 광주를, 영남에는 구미를, 충청도에는 대전을 각각 지역 클러스터로 각각 지정하여, 시험분석 수수료 율 할인 및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한 기업방문 공정 진단지도와 중소기업대상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향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본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험분석 기관들을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들에게 국제표준 및 노하우를 이전 확산하여 향후 지자체 중심으로 역내 기업들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의 환경규제대응력을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 사업에 참여한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자체 등 담당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전자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안내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본회는 지난해 디지털전자산업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협력(위)을 구성하였으며 나아가 실질적이고 보다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품·소재기술개발 협력 등 주제별 6개 협력분과의 산·학·연·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 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전자산업의 협력분위기 조성과 대 정부 건의 등을 적극 추진키 위한 「디지털전자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대토론회」를 지난 6월 2일에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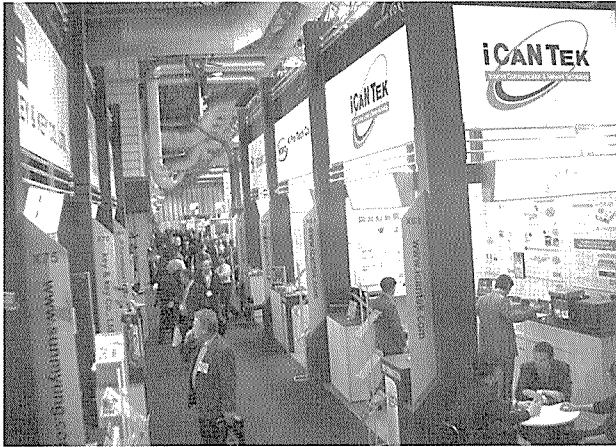


중소 시큐리티 업체, 버밍엄 보안 전시회 세계 최대 규모 참가

전자공업진흥회가 주관하는 버밍엄 보안기기전시회(IFSEC 2005)에서 40개의 중소기업들이 참가하여 2억 불에 달하는 상담 실적에 예상 계약액이 6,500만불에 이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5월 16일부터 4일간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IFSEC 2005에서 한국업체들은 LG전자, 삼성전자 등 개별 참가업체들을 포함한 총 66개사가 1,200m²의 부스를 이루어 2위인 대만(55개사)을 앞서며 외국 업체로는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관 중소기업들로부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특히 바이어의 상담과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품목은

- 모바일 DVR (Digital Video Recorder), 네트워크 DVR, sTAND aLONE DVR
- Speed Dome Camera, CCTV Camera , IP



Camera, Network Camera 등 Camera도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 지문인식출입통제기기, 홍채인식시스템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BT)분야
- CCTV Monitor, Camera용 정밀렌즈와 센서 또한 바이어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 디지털 홈네트워크 시장 증가 추세에 따라 Intelligent Home Server, 홈네트워크 시스템, Color Hands Free Video Door Phone 등 관련 제품도 호평을 받았다.

한국관 참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무엇보다 후발 경쟁국인 대만 중국 등의 기업들에 비해 임베디드 기술 및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접목하여 기존제품에 비해 보다 고급 기능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장착한 차별화된 기술을 많이 선보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의 다양한 용도의 DVR, 카메라 및 센서, 홈네트워크 기기, 서버 및 콘트롤러, 각종 보드류 및 바이오 기술 등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FSEC 2005에 참가한 총 참가업체는 40개국 900여개 사이며 바이어를 비롯한 총 방문객은 약 50,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000여명이 한국관을 내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번 한국관은 산업자원부와 KOTRA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경기도도 엠보테크 등 10개사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하였다.

전자공업진흥회(한국관 운영책임자 최영훈 상무)는 세계 최대의 Security 박람회로 부상한 IFSEC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참가 수요를 감안하여 2006년에는 올해(568m²)

보다 약 20% 이상 규모를 늘리기로 하고 주최사인 영국의 CMP와 700m² 규모의 부스 임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럽 폐전기·전자제품(WEEE) 처리지침 설명회 참가안내

오는 2005년 8월 13일부터 유럽연합 25개국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후부터 역내에 버려지는 폐전자·전기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회수 및 처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내업체들의 수출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우리 전자업체들의 사전대응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럽 폐전기·전자 처리지침 설명회

- 일시 : 2005. 6. 21(화) 14:00~17:3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역삼동 국기원 근처)
- 주요내용: WEEE 지침 개요
 - 국내의 기업 대응사례(소니 등)
- 참가신청: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환경팀 황조훈
 - 전화 : 02-553-0941(내선 333, 331)
 - 팩스 : 02-3452-2229
 - 이메일 : johoon@gokea.org
- ※ 교재 및 참가비 무료

2005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쇼 (Smart Home & Home Network Show) 폐막

디지털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며, 4일간 총 56,500여명(바이어 1,850여명 포함), 수출상담 3,500만 달러의 풍성한 성과 기록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스마트홈&홈네트워크쇼”가 디지털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며, 4일간 총 56,500여명(바이어 1,850여명 포함), 수출상당 3,500만달러의 풍성한 성과를 기록하며, 세계최초의 홈네트

워크 전문 전시회로서의 자리를 굳히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본회(회장 윤종용),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회장 이용경), 한국국제전시장(대표 김인식) 및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회장 이주장)가 공동 주관한 『제1회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 쇼(Smart Home & Home Network Show 2005)』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세상을 보여드립니다!(It's an Intelligent Home Network World!)』라는 주제 아래, 홈네트워크산업 조기 활성화, 홈네트워크 관련 신제품 개발 촉진, 수출증대와 내수 활성화, 신기술 개발 성과 소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등 전시회가 목적했던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제1회 행사였지만 홈네트워크 관련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3개국 153개사가 431부스의 대규모 전시장을 구성하였으며 참가 기업들 모두 더욱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홈네트워크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을 모두 보여주는 홈네트워크 축제의 장이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바이어 1,850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앞서가는 우리 홈네트워크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을 직접 보고 확인하며,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인 국제비즈니스 전시회였다.

이번에 전시된 총 1만 3천점의 출품물들은 통합 리모콘 하나로 영화를 보고, 커튼을 여닫고, 흡씨어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조명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에어컨도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되기도 하는 등 가정 내의 모든 전기기구, 문, 가스 등 가정의 모든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집 안팎에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

이 가져올 홈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동전시회 추진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1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중의 하나인 홈네트워크산업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업계의 집중된 노력으로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확대, 성장시킬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세계 최초의 홈네트워크 전시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내외 홈네트워크 관련업체,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업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시 규모도 확대하여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COMPUTEX 2005에서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9천3백만불의 상담실적 거둬

아시아 최대규모의 컴퓨터 전문전시회로 꼽히는 『COMPUTEX Taipei 2005(대만 국제 컴퓨터 박람회)』가 5일 동안의 전시일정을 마치고 지난 6월 4일 폐막하였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동전시회는 Intel, AMD, Acer, Asustek, BenQ, Hon Hai, Giga-byte, Ritek, Inventec, Microsoft, Motorola 등 주요대기업과 세계



각국의 컴퓨터관련 중소기업체를 포함하여 1,288개사(2,853부스)가 참여하였으며, 주최측인 TAITRA에 따르면 30,0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포함, 참관객수도 120,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을 보면 컴퓨터 부품 및 부분품, 주변기기에 편중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디스플레이, A/V 기기, 텔레메틱스 등 디지털컨버전스제품이 대거 출품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회(회장 윤종용)는 이번 전시회에 국내 중소기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잘만테크(주), (주)새로텍, (주)컴아트시스템, (주)사운드그래프, (주)에이엘테크, 새빛마이크로(주), 브이엘시스템(주), 유한정밀(주), (주)펜지, (주)아이티고, 넥사일렉트로닉스 등 11개사 16부스 규모로 TWTC Hall 1에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였으며 대만을 위시한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선 최신기술을 선보여 해외바이어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공동관 참가업체에서 출품한 주요품목을 보면 컴퓨터 부품 및 부분품, 멀티미디어기기 및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이며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설문 결과 상담액은 9천3백만불, 계약액은 3천4백만불로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출품작 중 잘만테크(주)의 컴퓨터 냉각장치, 전원 공급장치, 무소음 컴퓨터케이스를 비롯

하여 넥사일렉트로닉스의 양화면 모니터, 브이엘시스템(주)의 인디케이터 및 컨트롤러, (주)에이엘테크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주)펜지의 광학펜마우스 등이 높은 상담실적을 보였으며,

사용자인터페이스나 기능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Media Center인 Multimedia System을 선보인 (주)컴아트시스템(TV station)과 (주)사운드그래프(iMON series), HDD관련제품 및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인 (주)새로텍, 새빛마이크로(주)의 MP3 주변기기 및 웹캠 등도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본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컴퓨터 생산기지인 대만에서 컴퓨터 관련 전문 전시회로 25회째를 맞는 COMPUTEX가 대형 브랜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CeBIT이나 CES와는 달리 컴퓨터관련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업체나 OEM 제조업체 등이 대거 참가하는 소싱 전문 전시회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올해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컨버전스 제품을 대거 수용, 명실상부한 정보통신전문 전시회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IT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의 출품작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2006년에는 한국관 부스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체들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전기·전자산업 통합경영혁신 세미나'

1. 행사명 : 전기전자산업 통합혁신 세미나
2. 일정 : 2005년 7월 20일(수) 09:00 ~ 17:30
3. 장소 : 전경련 회관(대회의실, 중회의실)
4. 주최 : KMA 위원회
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후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신문사
5. 참가비(안)
회원사 : 100,000원/인 (VAT별도)
일반사 : 150,000원/인 (VAT별도)
*참가비에는 교재대, 중식, 음료대가 포함된 내역임.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회원사는 회원사 대우에 준함
6. 참가대상
- 전기전자산업 관련 기업 CEO 및 임원/내,외부 VIP
- 전기전자산업 전략기획, 마케팅, 생산, 보전, 품질, 기술부문 부서장
- 전기전자산업 관련 기업 경영혁신 추진 부서장
7.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품질본부 고희준팀장
- Tel. (02) 3786-0631,
- Fax. (02) 3786-0345
- e-mail. hjunkoh@csnet.co.kr